

#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책

구승희

동국대 인문학부 교수

벌써 십년 전의 일이다. 동독과 루마니아, 체코의 현실사회주의가 시스템 고장을 일으켜 내부 몰락한 직후인 89년 겨울에 나는 폴란드 남부의 아우슈비츠 근처 농촌에 며칠 머문 적이 있다. 이 집은 당시 독일에 와 있던 잘 아는 일본인 물리학자의 소개로 알게 된 은퇴한 폴란드 물리학자의 집이었다.

내가 갔을 때는 마침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갈탄 배급이 끊겼고, 노부부는 난방과 취사용 연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부부에게 환영받지 못할 손님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칸트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그들은 멀리 동양에서 온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다. 이방인은 방문의 권리를 가지며, 거주자는 '환대'의 의무를 진다고 했던가? 환대를 "낮선 땅에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Kant, Zum Ewigen Frieden)"로 규정한다면, 이는 국가공동체들간의 배타적인 공존의 논리요, 칸트적인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절묘한 절충이 아닐 수 없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뭐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거실에 나와 앉아 산더미처럼 어지럽게 쌓인 책을 찢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왜 책을 찢느냐고 물었다. 연금생활자인 부부는 연료가 없어 며칠째 책을 태워 요리를 했다는 것이다. 책은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 《레닌전집》, 혹은 폴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펴낸 《폴란드공산당사》, 지방당 위원회가 펴낸 선전팸플릿 등이었다.

할머니가 지어준 따뜻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자 할머니는 늦은 밤이면 추울 테니까 그때 더 태우라면서 책을 한아름 내가 잘 방으로 옮겨 주었다. 나는 할머니가 하던 대로 책을 찢어 난로에 집어 넣었다. 줄친 부분을 주목해서 읽기도 하면서... 두꺼운 장정의 표지와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 마르크스와 레닌과 이름 모를 덩수룩한 남자의 초상은 노란 불꽃을 내며, 활자가 인쇄된 갱지보다 더 잘 탔다. 아마 오늘을 예견하고서 초상화를 곁들인 별지를 인쇄했는지도 모른다. 연기가 나긴 했지만, 추위를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책을 태워 데운 방에서 그렇게 이틀밤을 따뜻하게 잤다.

1985년 무렵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적 장미빛 인생을 살아가는 데, 또 사회주의적 행복을 추구할 때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고 믿었던 지혜서! 그래서 깨끗이 보관되고 교양-학습 시간이면 한줄한줄 새겨 읽혔을 저 방대한 볼륨의 이념서! 이들은 이제 노부부와 멀리 극동에서 온 마르크스연구자의 끼니와 추위를 해결해주는 불꽃이 됐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있던 나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내 서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독일 유학생으로서 나의 실존적 정당근거이기도 했던 책들이었으며, 적어도 할머니의 아궁이에서 산화하는 '저 불타는 레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레닌 독해법이 실존의 기표(le signifie)였다면, 나의 레닌읽기는 여전히 이념의 기표였다. 하여튼 레닌은 살아 생전에는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선지자'로, 레닌 없는 세상에서도 할머니의 운명을 결정짓는 '현실적 지침서'로, 이제 마지막으로 장작개비가 되어 할머니의 생존을 책임짐으로써 삼중으로 왜곡된 운명을 마감하고 있다.

실로 "책은 각자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habent sua fata libelli)!"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강철같은 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채, 사회주의의 과학적 엄밀성과 그 유토피아적인 청사진을 그려냈다(어쩌면 나도 그들 중의 중요하지 않은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책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된 운명으로 인간에게 다가선다. habent sua fata libelli!

|          |    |   |
|----------|----|---|
| 초점       | 2  | 새 출판진흥법 제정 둘러싸고 출판계 분주<br>출판관련업을 산업 개념으로 수용할 법적 근거 마련       |
| 쟁점       | 3  | 일본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br>《게르마늄의 밤》 둘러싼 한·일간 줄다리기               |
| 특집/전쟁    | 4  | 전쟁사는 참화와 비극의 정치사/역사 - 김홍철                                   |
|          | 5  | 역사 속을 배회하는 전쟁영웅   |
|          | 6  | 비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은 예술/문학 - 한수영                                   |
|          | 7  | 장쾌한 스케일에 감춰진 그 무엇/영화 - 김정룡                                  |
|          | 8  | 동서양의 손꼽히는 군사고전/전쟁론 - 이내주                                    |
|          | 10 | 미래전은 네트워크가 핵심/개념변화 - 김영길                                    |
| 포트       | 12 | 책들의 전쟁 - DJUNA  |
|          | 13 | 히틀러의 음모 - 양준석   |
|          | 14 | 총성 없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 김호경                                     |
| 이책을 말한다  | 16 | 역사와 설화를 현실에 되살린 흥미로운 고전 - 조운찬<br>《사신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
| 화제의 출간   | 17 | 조상호 지음 《한국인론과 출판저널리즘》<br>한기호 지음 《희망의 출판》                    |
| 탐방       | 18 | 찾아가는 문화학교<br>과학독서아카데미                                       |
| 출판계 소식   | 20 | 도서정가제 2002년까지 현행대로 유지·외                                     |
| 만화       | 21 | 책과 오과장 - 박시백  |
| 마케팅 캠프   | 22 | 잠재고객 규모 키우는 전략상품 필요 - 한기호                                   |
| 출판광고 클리닉 | 23 | '글로 만든 집' 꿈꾸는 문학의 마당 - 마정미                                  |
| 화보       | 24 | '99 서울국제도서전 이모저모  |
| 서점가      | 26 | 대학가 서점서 본 요즘 대학생들의 독서경향                                     |
| 해외       | 27 | 1만권의 전자책 만드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외                                   |
| 서평       | 28 | 정옥자 외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 박광용<br>정화열 《몸의 정치》 - 김옥동             |
|          | 29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5·18은 끝났는가》 - 강정인                               |
|          | 30 | 크리스찬아카데미 엮음 《시민이 열여가는 지식정보사회》 - 김수현                         |
|          |    | 피터 J 보올리 《찰스 다윈》 - 박희주                                      |
|          | 31 | 박상우 《청춘의 동쪽》 - 이경호  |
| 이 책 그 사람 | 32 | 《버림을 거머쥔 솔뿌리어》 펴낸 백기완씨<br>《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펴낸 신주백씨 |
|          | 33 | 《애들아, 해외봉사 가지》 펴낸 박재영씨<br>《상어》 펴낸 최윤씨                       |
|          | 34 |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
|          | 48 | 독서퍼즐  |